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요한 5,8)

코로나19는 한 시대 역사와 사회 등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사건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바이러스 이전처럼 지내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의 역량 및 새로운 활력 에너지를 자신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별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불을 피해 탈주했습니다. 그러나 별새 한 마리는 도망치지 않고 불 속으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호랑이가 별새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도망치지 않니?” 별새는 대답하였습니다. “내 부리에 물을 넣어서 불에다가 날려 떨어뜨리고 있어”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너 참 바보구나! 어리석은 행동이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불은 꺼지지 않아” 별새는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호랑이와 별새는 둘 다 갈등 앞에서 반응이 다르지만, 저는 두 가지 선택 모두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새는 주위의 상황과 관계를 맺을 때 더 큰 선을 찾는 행동이 자기 자신과 더 진실하고 정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처럼 본능 또는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치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새의 행동은 호랑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소소한 일이라도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내 생각은 별새와 호랑이 중 누구의 생각을 따랐을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보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변화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이렇듯 각자의 노력이 모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밝은 현재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기와 전기,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이론물리학자

## 해방촌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7월 2일(토)~3일(일) 해방촌성당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중헌 요셉 부위원장 신부,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부는, 성탄 선물을 받고 오염하고 출소 후 첫 수업을 감옥에 갇힌 또 다른 불우한 형제를 위해 써달라는 편지와 함께 보낸 출소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그저 가두어 둔다고 능사가 아니다. 오른손이 썩어들어간다고 잘라버리지 않고, 살펴보고 치료하고 봉대로 감싸놓듯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격리하고 죽이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다. 교정사목의 후원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겠다.”라며 “그 사랑으로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해방촌 성당 주임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기 인성교육



6월 15일(수), 21일(화)~24일(금) 서울남부구치소 남사에서 15명을 대상으로 3기 인성교육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유나 강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활동과 성향 진단으로 긍정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대인관계의 개선과 협동심이 생겼고 자신감을 되찾아 배려심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대학교구 신학대학 신학생 사회사목국 실습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서울대학교구 신학대학 4학년 사회사목국 실습이 재개되었습니다. 6월 20일(월)~27일(월) 22명의 서울대학교구 신학과 4학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삶을 느끼기 위해 사회사목국 8개 위원회에서 현장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배정받은 2명의 신학생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소외된 이들의 삶을 체험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성당에 다니며 복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성당과 멀어져서 언제 가보았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온 천주교 일상 기도문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문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고 점점 익숙해지자 묵주기도도 드리고 싶어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편지를 드렸더니 묵주와 묵주기도문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7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꾸준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5단까지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익숙한 듯이 자연스럽게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지난 저의 잘못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반성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직은 저를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의 얼굴을 볼 자신이 생기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 더 제가 노력해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면 가족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을 용기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노인·환자 치료 사동이라서 사소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때로는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있지만, 어릴 적 재활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보아서인지 큰 거부감보다는 고마워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왠지 제가 더 뿌듯해지는 거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글을 교정사목에 보내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단단해지면 용기 내어 부모님께도 편지를 써 보아야겠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던 주님처럼 저희 수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드리고 주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그리고 가족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작은 변화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06.06.

채OO 올림

## - 교정사목 체험 후기 -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8, 7)

윤세진 미카엘 / 신학대학 4학년

오늘날 많은 매체에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우정) 같이 사랑은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평소에 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가치보다 더욱 들어 높여집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세속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인간 본연이 가진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사랑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만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궁금했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후 동기들과 함께 사제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이런저런 토론을 하며 스스로 올바른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정사목 실습으로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정시설에 방문할 때마다 제 삶 속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환경, 수용자의 복장은 위압감을 줬고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제가 읽고 묵상했던 복음 속의 사랑은 마치 고장 난 전등의 빛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제 앞에서 있는 형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편견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있었고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완고한 생각은 실습을 진행할 수록 무너져갔습니다. 전례 속에서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복사, 전례 순서가 인쇄된 종이를 보며 어떻게든 전례를 따라가려는 사람, 고해성사를 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보았던 평범한 모습들이었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 다른 궁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실습 중 만나게 된 몇몇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만난 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엄격해 따라갈 엄두가 안 나고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예수님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바꾸고 끊임없는 회개와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올바른 길을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한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기적의 모습으로 그들의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선함을 증진시키고 계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8, 7)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타인을 단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비난하고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삶 속에서 선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심 없는 헌신이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냈듯 우리 또한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의 가능성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선의 축진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8, 24)

장인수 야고보 / 신학대학 4학년

저는 대신학교 방학 프로그램인 ‘사회사목 체험’을 통해 교정사목위원회에서 어떤 사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사목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교정사목을 신청했던 이유는, 저의 생각에 지금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대중적인 시각에서 교정시설에 계신 수용자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과 그분들의 관계자들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고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체험 동안 ‘평화의 집’이라는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평화의 집은 출소자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숙소인데, 저희도 함께 지낼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숙소를 배정받은 후에 서울 곳곳에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분들과 함께하는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수용자와 미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용자분들을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사목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찾아 나섬’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됐기에 소외된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숨어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소외된 분들, 소외된 장소를 찾아 나서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하는 많은 일이 본당 사목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님을 이번 체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세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당 차원에서 그분들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본당에서 사회사목을 실천한다면 교구 차원으로 더 넓어질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그분들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하느님 백성 모두는 희망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희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교회가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모두 주변을 살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2022년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안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 25,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들과 같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교정사목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2022년 9월 1일(목)~12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 교육비 : 10만원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신청 : 2022년 8월 26일(금)까지 (☎921-5093 / 010-3732-5093)
- 교육일정

- 1) 온라인 교육 : 15~30분 내외 (교육 기간 중 시청 가능)
- 2) 영상 프로그램 : 네이버 밴드

회기	날짜	강의내용	강사	소속
1	9월 1일 ~ 12월 1일	교정 봉사의 의의와 봉사자 격려	Bp.유경춘	사회사목담당교구장대리
2		청소년 교정시설 소개	Fr.유상철 / 최불암	살레시오회/배우
3		빈곤과 범죄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4		억울한 옥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윤성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5		교정봉사 / 사형수 / 사형제도 폐지	공지영	작가
6		출소 후 삶의 방향	김종민	출소자 형제

2) 오프라인 교육 : 2022년 9월 1일(목)~12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교정사목센터 2층 배움터

회기	날짜	강의내용	강사	소속
1	9/1(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	Fr.송정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2	9/8(목)	교정사목과 사회교리	Fr.상지중	의정부교구 교하본당 /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총무
3	9/15(목)	영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Fr.차동욱	대신학교 지도교수
4	9/22(목)	범죄와 형벌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5	9/29(목)	범죄와 교정	이백철	前 경기대 교수
6	10/6(목)	범죄 심리	이수정	경기대 교수
7	10/13(목)	고봉중고등학교/소년분류심사원	Fr.최남식	살레시오회
8	10/20(목)	누명과 재심	장동익 박준영	출소자형제 인권변호사
9	10/27(목)	수용자, 수용자 가족, 범죄 피해자와의 상담심리를 통해 본 그들의 이해	Sr.최인형	노틀담수녀회
10	11/3(목)	교정시설의 이해	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
11	11/10(목)	생명 윤리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도에 대한 교회의 입장	Fr.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 자문위원
12	11/17(목)	현장 활동 사례	대표 봉사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3	11/24(목)	시설참관		
14	12/1(목)	마무리 강의 / 파견 미사	Fr.현대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9월 5일(월)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9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동서울 광장동성당
▶ 9월 26일(월)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 2022년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안내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시: 2022년 9월 1일(목)~12월 1일(목) ■ 장소: 교정사목 센터 ■ 교육비: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소식지 6~7면**을 참고해 주세요.

### ● 행사 알림

- 8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10:30
- 8월 8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길음동성당 / 10:30
- 8월 11일(목) 해밀 가족 야유회
- 8월 17일(수)~19일(금)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 / 성앵베르센터
- 8월 22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양천성당 / 10:30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6/16~7/14)

2022년 6월~7월에는 김은숙 율리아, 백남중 베드로, 오승자 까리따스, 윤두만, 이종용 베드로, 손서정, 한재숙 아네스, 해방촌성당 신자 51명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하성민, 해방촌성당 신자 3명께서는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